

[ **국제** ]



APEC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23일 오후(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시내 MoD 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호수 케미라드 총리, 브루나이 불키아 국왕, 캐나다 허버 총리, 칠레 바첼렛 대통령, 중국 후진타오 주석, 페루 가르시아 대통령, 홍콩 도널드 창 행정수반,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 일본 아소 총리, 이명박 대통령,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 뒷줄 왼쪽부터 말레이시아 니집 라자 부총리, 멕시코 칼데론 대통령, 뉴질랜드 존 키 총리, 피푸아뉴기니 소마레 총리,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 싱가포르 리선룡 총리, 대만 쟌전 부총통, 태국 슌차이 총리, 미국 부시 대통령, 베트남 응웬 민 쟌찌 국가주석. /연합뉴스

# “세계 금융위기 18개월 내 극복”

## APEC 정상회의 폐막... 보호무역 장벽 철폐 등 합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상들은 23일 세계를 경기침체로 몰아가고 있는 금융위기가 앞으로 18개월 내인 오는 2010년 중반까지 극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21개국 정상들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폐막된 APEC 정상회의의 성명을 통해 “금융부문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신속하고 이해적인 조치들을 취했다”며 “이번 위기를 18개월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불안정한 식량 가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세계는 부정부패와 해적행위와 맞서 싸울 태세가 되었다고 강조하는 한편, 1년 안에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지 않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의 '18개월 내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선언은 당초 정상선언문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최국인 페루의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이

청으로 삼입됐다 고 익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이번에 언급된 18개월이라는 기간은 선진국들이 2009년도에 평균 0.1%의 경제성장을 하고 이듬해에야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단단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과도 맞아떨어지는 시간이다.

그러나 일부 정상들과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 인 것이라며 선언문의 내용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도 감지된다.

멕시코의 필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18개월이라는 기간이 예측이라기보다는 추측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 “그러한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혼란에 빠진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캘리포니아주립대(버클리) APEC 연구센터의 비노드 에거울 박사는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해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정상들이 다음달 DDA 협상에 시동을 걸기로 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美, 씨티그룹 3,060억弗 지급 보증

200억弗 추가 지원도

미국 연방정부가 씨티그룹에 200억 달러를 투입하고, 부실자산에 대해 최대 3천60억달러까지 지급보증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과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 씨티그룹에 250억 달러를 투입한 데 이어 2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또 부실 가능성이 있는 씨티그룹 자산에 대해 3천60억 달러까지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가사회(FRB), 연방예금보통공사(FDIC)는 공동 성명을 통해 “미 금융업계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국인과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씨티그룹에 대한 미국 정부의 2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는 씨티그룹 우선주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되며, 그 재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천억달러 규모의 금융업계 구제금융에서 전용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달 금융업계에 대한 긴급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씨티그룹에 250억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미 정부가 이번에 매입하는 씨티그룹 우선주는 지난달 구제금융자금 지원액보다도 높은 8%의 배당률을 적용받는다.

## 중, 2단계 경기부양책 마련중

중국 정부가 4조위안(약 800조원)에 달하는 고정자산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대규모 감세와 보조금 등을 통해 내수를 촉진하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마련 중이라고 중국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중경시보 등 중국 언론은 이날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서 개인소득 과세표준을 올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와 주거 등 사회보장성 보조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수부양대책 초안을 작성 중이며 따르면 오는 12월 초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토론회를 거쳐 확정돼 연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발개위 내수촉진방안 연구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초안에는 감세와 보조금을 통해 소득분배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 향후 노동자 수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5% 안팎까지 끌어올려 소비확대 조인을 조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사회보장성 보조금 지출을 통해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를 촉진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직접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 지방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 힐러리 국무장관 시대...美 한반도 외교는

# 북핵, 직접 대화 해결 주장 FTA는 오바마 보다 강경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내년 1월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되면서 힐러리 국무장관 시대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다져지고 실행될 지 주목된다.

모든 행정부 내 각료가 마찬가지로 지겠지만 특히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임을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 대외정책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영향력의 차이가 결정된다.

힐러리는 일단 오바마 당선인의 신임 속에 대외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는 대선 후보로 나섰던 중랑감과 퍼스트레이디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오바마 당선인이 아무리 ‘보스’라고 하지 않더라도 힐러리가 ‘노(NO)’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힘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힐러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직접 외교를 통한 과감한 대화’, ‘북한 비핵화 달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오바마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주당 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힐러리는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의 정상들과 조건없이 직접 만나겠다는 오바마 당선인의 주장을 “무책임하고 천진난만한 발상”이라고 몰아세웠지만,

대화의 필요성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오바마도 최근 대선 당시의 언급에서 한발짝 후퇴해 “모든 준비를 갖추 놓은 뒤에 정상들과의 대화에 임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하고 있어 이 문제를 놓고 오바마와 힐러리가 충돌할 개연성은 낮아보인다.

특히 힐러리는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검토할 정도로 대화론자였다는 점에서 외교문제에 있어 남편과 DNA를 공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다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서는 힐러리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오바마보다 더욱 강경하게 ‘타임아웃(일시정지)’을 선언한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 더 강하고, 남편인 클린턴 전 대통령도 대선기간에는 반대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취임 후 강력히 추진했던 전례를 감안할 때 국적이 아니라 힐러리의 입장이 변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 전자여행허가 출국 3일전 신청 하세요

### 美비자면제 설명회

마크 스트리저 주한 미국 대사관 부총영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가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설명회에서 “ESTA 신청시 통상적으로는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간혹 ‘대기’ 상태로 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며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 출국 3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미국 방문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이 갖춰야 할 5 가지 조건으로 ▲단기 출장이나 관광 목적으로 ▲체류기간 90일을 넘지 않고 ▲6개월 이상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등록된 운송수단을 통한 미국 출국항공권을 제시해야 하고 ▲ESTA(https://esta.cbp.dhs.gov)를 통해 사전 승인을 취득할 것 등을 들었다.

또 비자발급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미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경우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학업,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기존 일반여권을 교체할 경우 ▲ESTA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미국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등 7 가지를 꼽았다.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친집상담**  
☎ 062)222-8446  
H.010-3666-8446

**파견중개**

---

**부동산**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현인동	154/416	14억3000만	7억9000만	상가·오피스텔
우산동	727/1431	67억2000만	47억	지체지공·연세대
우산동	188/193	10억9000만	5억9000만	노년층주택
우산동	146/400	12억7000만	7억1000만	상가·사무실
우산동	137/223	8억1000만	3억5000만	상가·사무실
우산동	362/993	41억4000만	26억5000만	금융·여행호텔
우산동	1139/1959	111억1000만	62억2000만	병원
우산동	40/34	4억9000만	2억4000만	수협초고건·민간병원

---

**주거**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백운동	48/35	9740만	5450만	서해여중 인근
운암동	41.4/58.6	1억4600만	8380만	2층·2차로·보통
우산동	47.8/39.7	1억2210만	6550만	2층·우산신도시 인근
신성동	67.5/50.9	2억3150만	1억9200만	3층·상가·도심
우동	150/20	7800만	7800만	화동미물내
화동	68.9/46	1억4100만	6320만	2층·속살·남대문
화동	176/87	4900만	2700만	구산미물내
우산동	116/56	1억4000만	8200만	메일·시암인근
강명동	246/39	8300만	8300만	상산미물내
고사동	185/81	1억5000만	7400만	삼익미물내
장성동	101/34	1억	7000만	장흥동사무소 인근
계림동	55/22	8200만	4600만	재개발예정지역

---

**아파트**

소재지	평형	총 면적	감평가	최저가
우산동	주공2단지	4층	32	9000만
우산동	한양	6층	32	1억1000만
우산동	경남	11층	24	7500만
우산동	대저	7층	25	8000만
화동	금호에스텔	16층	47	2억4000만
화동	우미	16층	32	1억2500만
남일동	해태	2층	32	1억1000만
신성동	현대캐슬	7층	59	3억2000만
대곡동	신영	6층	32	8300만
대곡동	서강주공	8층	24	4800만

---

**토지**

소재지	용도	면적	감평가	최저가
양정동	담	1004	3600만	2020만
금천동	구수정	2600	9억1000만	6억4000만
관산동	담	907	6600만	4620만
본동	전	558	1억1000만	6540만
우곡	전	591	3억7000만	2억6000만
관서동	담	506	2000만	1410만
명동	담	2283	6870만	4810만
화동	담	478	1580만	1110만
대곡	구수정	1362	8200만	4600만
화동	담	810	4280만	4280만

---

**공장**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명동	1444/690	10억2500만	7억2500만	발전소 인근
관서동	634/185	11억5000만	6억4500만	메일·연세대·유엔
명동	1282/706	12억2400만	6억8500만	금호·광주·신촌
화동	9165/179	15억5840만	10억160만	후원·100여도
화동	1816/498	6억7520만	4억7270만	유엔·주공

---

**건립실적**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차평동	38.2	7200만	4040만	구영·대림·7층
차평동	30.4	5700만	3990만	랜드마크·19층
차평동	156.7	3억9000만	2억3100만	로트·도림2층
화동	40.5	7000만	2510만	금호·대림
신안동	76	5100만	2860만	재민·구수·12층

---

**건립실적 (모형)**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현인동	388/978	9억9700만	4억4200만	5층·우산신도시 인근
운암동	3430/10828	116억	65억	서해·C노선·주공
화동	217/646	4억5400만	3억1900만	5층·백암·유엔
남평동	2751/2071	15억4000만	6억3000만	4층·유엔·지하철
우산동	210/980	5억2000만	3억2600만	5층·아파트
대곡	498/514	3억3000만	2억4700만	3층·도림·보통
북면	3613/2670	17억4500만	9억7800만	6층·연세·연세대

---

**건립실적 (토지)**

소재지	용도	면적	감평가	최저가
관산동	담	907	6600만	4620만
목동	전	591	3억7000만	2억6000만
본동	전	558	1억1000만	6540만
대곡	구수정	1362	8200만	4600만
명동	담	2283	6870만	4810만
관서동	담	506	2000만	1410만
화동	담	478	1580만	1110만
명동	담	2283	6870만	4810만
관서동	담	506	2000만	1410만
화동	담	478	1580만	1110만

---

**건립실적 (공장)**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우산동	188/193	10억9000만	5억9000만	노년층주택
우산동	146/400	12억7000만	7억1000만	상가·사무실
우산동	137/223	8억1000만	3억5000만	상가·사무실
우산동	362/993	41억4000만	26억5000만	금융·여행호텔
우산동	1139/1959	111억1000만	62억2000만	병원
우산동	40/34	4억9000만	2억4000만	수협초고건·민간병원

---

**건립실적 (부동산)**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백운동	48/35	9740만	5450만	서해여중 인근
운암동	41.4/58.6	1억4600만	8380만	2층·2차로·보통
우산동	47.8/39.7	1억2210만	6550만	2층·우산신도시 인근
신성동	67.5/50.9	2억3150만	1억9200만	3층·상가·도심
우동	150/20	7800만	7800만	화동미물내
화동	68.9/46	1억4100만	6320만	2층·속살·남대문
화동	176/87	4900만	2700만	구산미물내
우산동	116/56	1억4000만	8200만	메일·시암인근
강명동	246/39	8300만	8300만	상산미물내
고사동	185/81	1억5000만	7400만	삼익미물내
장성동	101/34	1억	7000만	장흥동사무소 인근
계림동	55/22	8200만	4600만	재개발예정지역

---

**건립실적 (아파트)**

소재지	평형	총 면적	감평가	최저가
우산동	주공2단지	4층	32	9000만
우산동	한양	6층	32	1억1000만
우산동	경남	11층	24	7500만
우산동	대저	7층	25	8000만
화동	금호에스텔	16층	47	2억4000만
화동	우미	16층	32	1억2500만
남일동	해태	2층	32	1억1000만
신성동	현대캐슬	7층	59	3억2000만
대곡동	신영	6층	32	8300만
대곡동	서강주공	8층	24	4800만

---

**건립실적 (토지)**

소재지	용도	면적	감평가	최저가
양정동	담	1004	3600만	2020만
금천동	구수정	2600	9억1000만	6억4000만
관산동	담	907	6600만	4620만
본동	전	558	1억1000만	6540만
우곡	전	591	3억7000만	2억6000만
관서동	담	506	2000만	1410만
명동	담	2283	6870만	4810만
화동	담	478	1580만	1110만
대곡	구수정	1362	8200만	4600만
화동	담	810	4280만	4280만

---

**건립실적 (공장)**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명동	1444/690	10억2500만	7억2500만	발전소 인근
관서동	634/185	11억5000만	6억4500만	메일·연세대·유엔
명동	1282/706	12억2400만	6억8500만	금호·광주·신촌
화동	9165/179	15억5840만	10억160만	후원·100여도
화동	1816/498	6억7520만	4억7270만	유엔·주공

---

**건립실적 (부동산)**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차평동	38.2	7200만	4040만	구영·대림·7층
차평동	30.4	5700만	3990만	랜드마크·19층
차평동	156.7	3억9000만	2억3100만	로트·도림2층
화동	40.5	7000만	2510만	금호·대림
신안동	76	5100만	2860만	재민·구수·12층

---

**건립실적 (모형)**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현인동	388/978	9억9700만	4억4200만	5층·우산신도시 인근
운암동	3430/10828	116억	65억	서해·C노선·주공
화동	217/646	4억5400만	3억1900만	5층·백암·유엔
남평동	2751/2071	15억4000만	6억3000만	4층·유엔·지하철
우산동	210/980	5억2000만	3억2600만	5층·아파트
대곡	498/514	3억3000만	2억4700만	3층·도림·보통
북면	3613/2670	17억4500만	9억7800만	6층·연세·연세대

---

**건립실적 (토지)**

소재지	용도	면적	감평가	최저가
관산동	담	907	6600만	4620만
목동	전	591	3억7000만	2억6000만
본동	전	558	1억1000만	6540만
대곡	구수정	1362	8200만	4600만
명동	담	2283	6870만	4810만
관서동	담	506	2000만	1410만
화동	담	478	1580만	1110만
명동	담	2283	6870만	4810만
관서동	담	506	2000만	1410만
화동	담	478	1580만	1110만

---

**건립실적 (공장)**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우산동	188/193	10억9000만	5억9000만	노년층주택
우산동	146/400	12억7000만	7억1000만	상가·사무실
우산동	137/223	8억1000만	3억5000만	상가·사무실
우산동	362/993	41억4000만	26억5000만	금융·여행호텔
우산동	1139/1959	111억1000만	62억2000만	병원
우산동	40/34	4억9000만	2억4000만	수협초고건·민간병원

---

**건립실적 (부동산)**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백운동	48/35	9740만	5450만	서해여중 인근
운암동	41.4/58.6	1억4600만	8380만	2층·2차로·보통
우산동	47.8/39.7	1억2210만	6550만	2층·우산신도시 인근
신성동	67.5/50.9			